‘비구니 참여 명문화’ 화두 던지다

조계종 중앙종회 제218회 임시회가 남긴 것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7월 23일부터 5일 간의 회기로 개원한 조계종 중앙종회 제218회 임시회가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단축해 폐회했다.

이번 중앙종회에서는 중앙종회의원 겸직 금지 완화를 골자로 한 종헌 개정안과 비구니 명사 추천 관련 법계법 개정안은 개원 전부터 쟁점 법안으로 꼽혔지만 종헌 개정안은 부결, 법계법 개정안은 대표발의자인 정운 스님(15교구)이 스스로 철회하며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스님 7명이 발의한 법계법 개정안은 비구니 명사는 전국비구니대표단체(명사법계추대위원회) 추천을 받아 재적교구본사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는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의 지원자격과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한 법계법 개정안이 다룰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구니 최고법계인 명사 법계에 대한 절차도 함께 다뤄져야 한다는 비구니계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실제, 원로 비구니 스님을 명사로 추대함에 있어 비구니 스님들의 의견수렴 · 추천 없이 교구 추천만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비구니계의 위계질서가 무너지고 교구본사와 상충하는 요소가 발생해왔다는 게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법계법 개정안에 명시된 ‘전국비구니대표단체’를 의미하는 전국비구니회가 종법기구가 아닌 것이 문제가 됐고, 결국 대표발의했던 정운 스님이 “내용을 보완해 11월 정기회에 다시 발의하겠다”고 밝히며 개정안을 철회했다. 대종사 특별전형의 지원 자격을 명문화한 법계법 개정안이 통과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철회 직후 정운 스님은 법계법 등 종법 안에 비구니 관련 조항을 명문화시켜 달라는 화두를 던졌다. 스님은 “이번 임시회를 통해 대종사 특별전형 자격기준이 명문화됐다. 하지만 비구니 스님 관련 기준 조항이 없다”면서 “전국비구니회 설립과 명사 추대 관련 법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자구책”이라고 항변했다.

‘전국비구니대표단체’ 논란에
법계법 개정안 스스로 철회
“종법 內 비구니 조항 없어”
대종사 자격기준만 명시돼
이부승가 맞는 법 개정 필요

이어 “법계법 개정이 어렵다면 법계위원회 내에 비구니 스님들이 참여하는 명사추대위원회를 만들어서 원로 비구니 스님들을 추천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달라”라며 “종법에 비구니 조항이 없다는 것은 비구니를 차별하는 것이다. 이는 이부승가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사실, 법계법 내 비구니 관련 조항은 전무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당장, 9인으로 구성되는 법계위원회에는 비구니가 참여할 수 없다. ‘총무원장 제청으로 종사 이상 비구 중에서 중앙종회 동의를 거쳐 총무원장이 위촉’하게 돼 있어서다.



조계종 중앙종회 제218회 임시회가 7월 23~24일 열렸다. 사진은 삼귀의례와 반야심경을 봉독하는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의 모습. 사진=박재완 기자

전형방법과 기본자격요건에서 ‘비구니 법계 전형 또한 비구 전형에 준한다’, ‘비구니 법계 요건은 비구 법계에 준한다’고만 명시할 뿐이다.

정운 스님의 주장대로 애초 비구니 스님들이 법계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으니 비구니 스님들이 주체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같은 불합리함은 지난 2013년 비구니 호계위원 진입을 위한 종헌 개정안을 놓고 불거진 논란에서도 잘 나타난다. 조계종 중앙종회 제194차 임시회에서는 비구니 호계위원 진입 관련 종헌 개정안이 상정됐으나 부결됐다. 당시 비구니 스님들의 호계위원 참여는 조계종 종단쇄신위원회가 채택한 ‘호법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서’에도 담긴 내용이었으나 일부 비구 스님들이 율장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비구’를 ‘승려’로 바꾸는 것을 반대했다.

논의 과정에서 한 비구 의원 스님은 “비구니 스님이 비구니 스님을 심사하면 더 많은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비하 발언을 했고, 격분한 비구니 스님들이 전원 퇴장하고 회기를 보이콧하는 사태까지 갔다.

법계법과 관련해 법제분과위원회와 일부 비구 스님들이 제안하는 해결방안은 전국비구니회의 ‘종법기구화’이지만, 이 역시 쉬운 일은 아니며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보다는 조계종 종헌 · 종법 내에서 비구니 스님들이 종단 종무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폭을 확대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구니 스님들이 발의해 철회한 법계법 개정안은 ‘종법 내 비구니 참여 명문화’라는 화두를 던져줬다.

“존경받는 이사장으로 선학원 쇄신 이끌길”

선학원미래포럼 입장문 발표
신임 이사장에게 변화 요청
“자율성 지키며 종단과 화합”

재단법인 선학원 창건주 · 분원장 스님들이 20대 이사장에 선출된 송운 스님에게 선학원 쇄신을 위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선학원미래포럼 창건주 · 분원장협의회(회장 자민)는 7월 21일 자민 스님 명의로 ‘선학원의 변화와 쇄신을 기대합니다-제20대 이사장 선출에 부쳐’ 제하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서 협의회는 “선학원이 처한 작금의 현실은 참으로 위중하고 안팎으로 헤쳐 나가야 할 과제 또한 결코 녹록치 않다”며 20대 이사장 송운 스님에게 선학원 변화를 위한 역할을 당부했다.

협의회는 송운 스님에게 선학원 창건주 · 분원장과의 소통 그리고 조계종과의 갈등 해소를 선결 과제로 주문했다. 특히 소통을 위한 변화로 정관과 선학원 내부규정을 창건주 · 분원장 스님들에게 공개하고 전국분원장회의를 개최해 창건주 · 분원장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대중공의를 통해 재단 운영의 방향을 올바로 정립하고 무너진 수행풍토를 쇄신하여 승풍을 진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 이사장 체제에서 악화일로를 걸어온 조계종단과의 갈등에 대해서도 “재단의 자율성을 지키면서 화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전국 분원이 안정되고 분원장과 이사회가 한마음이 될 때 비로소 선학원 재단이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협의회가 송운 스님에게 남다른 기대감을 보이는 것은 스님이 석주 정일 스님의 상좌이기 때문이다. 불교개혁과 정화운동의 산증인인 석주 스님은 선학원 창설에 큰 기여를 한 남전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고 선학원 제6대 이사장과 조계종 총무원장을 역임했다.

스님들은 “종단 화합과 청정 수행가풍 확립이야말로 불교발전의 기본 토대라는 신념을 가지고 선학원 창립정신을 구현하고자 평생을 정진했던 어른”이라며 “송운 스님은 석주 스님의 뜻을 계승하고 선학원의 창립정신의 회복해 선학원을 바로 세울 책무가 있다. 이사장이 바뀌어도 여전히 구태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교계의 우려를 불식하고 ‘제2의 정화불사’ 이상의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협의회 스님들은 “선학원은 암울한 과거를 털고 일어나 찬란한 미래를 열어야 한다”며 “우리가 몸담은 선학원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송운 스님이 선학원의 변화를 이끌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조계종 해외특별교구장 정우 스님 임명

원행 스님 22일 임명장 수여… “해외교구 활성화를”

조계종 제3대 해외특별교구장에 정우 스님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7월 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해외특별교구장 정우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임명장 전달 직후 원행 스님은 “어려운 시기지만 해외교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많은 해외 한국사찰이 현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잘 화합시키고 단합시켜서 삼보정재가 유실되지 않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정우 스님은 “앞으로 해외교구가 활성화되는 데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정우 스님은 홍법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68년 통도사에서 홍법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1971년 통도사에서 월하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9~12대 중앙종회의원, 총무부장, 통도사 주지, 제3대 군종특별교구장, 불교방송 이사 등을 역임했다. 서울 강남서 천막법당으로 도심포교를 시작해 구룡사를 일궈내고, 일산 여래사를 창건했다. 또한 군종교구장으로서 군불교 활성화에 뚜렷한 공적을 남겼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7월 22일 해외특별교구장 정우 스님(사진 오른쪽)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신성민 기자

조계종 신임 호법부장에 태원 스님

종회 임명동의안 가결 후
원행 스님, 임명장 수여해

조계종 신임 호법부장에 태원 스님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7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신임 호법부장 태원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앞서 원행 스님은 7월 22일 호법부장 서리로 태원 스님을 임명했고, 호법부장 임명동의안을 중앙종회에 발의했다. 이후 7월 23일 개원한 조계종 중앙종회 제218회 임시회에 상정된 동의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임명장 수여 직후 원행 스님은 “종단 발전을 위해서는 호법 업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종단을 위해 애써달라”고 당부했다. 태원 스님은 “종단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7월 23일 신임 호법부장 태원 스님(사진 오른쪽)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한편, 신임 호법부장 태원 스님은 혜성 스님을 은사로 1992년 수계(사미계)하였으며, 호법부 상임감찰, 총무원 기획국장, 호계원 사무처장, 법장사 주지, 보문사 주지 및 제16대, 17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다. 현재 안동 봉황사 주지를 맡고 있다. 신성민 기자

조계종 2급 승가고시 9월 25일 시행된다

고시위, 8월 31부터 접수

조계종이 올해 2급 승가고시를 9월25일 김포 중앙승가대학교에서 진행한다.

조계종 고시위원회(위원장 지안)는 2급 승가고시 일정을 공고하고 8월 31일부터 9월 9일까지 원서를 접수한다.

고시과목은 논술과 설법시연 분야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논술 선택자는 사전제시된 6개 주제 중 출제된 2문제 중 하나를 선택해 작성하면 된다. 설법시연 선택자는 응시원서 제출시 설법 요약문을 700자 이내로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설법대상 및 설법주제는 자유이며 고시 당일 설법평가위원과 응시대중 앞에서 10분간 설법을 시연하게 된다.

각 항목별 40점 이상, 총점 180점 이상시 합격한다.

2급 승가고시에 응시하고자 하는 스님은 재적 교구본사 종무소에 관련 서류와 신청서를 접수하고, 직할교구 재적승의 경우 교육원 교육부에 접수하면 된다. 02)2011-1809 송지희 기자